

전남

여수·순천 박람회 준비 걱정되네

예산·SOC 등 잇단 논란에 지역민들 우려 확산... 전반적 재검토 주장도

여수 세계박람회와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등의 개최 준비가 차질을 빚으면서 개최 도시 지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은 절차·규모·예산·시기 등에 대한 부적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를 비롯 6·2 지방선거 입지자,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박람회 문제를 들고 나서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부 지역사회연구소는 "박람회관련 총예산은 4천500억에 달한다"며 "계획대로 추진되면 최소한 3천억원 이상의 시비가 투입될 것이며 시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의 직접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대형프로젝트의 즉흥적 추진으로 인한 시 재정건전성 악화를 꼽았다. 또 당초 사업목적의 왜곡, 과다 등을 지적하고 시민적 합의를 통한 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에도 순천시는 최근 동사연 측이 제안한 순천시·시의회·정치권이 참여하는 토론회에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된다'는 이유로 참석을 거부해 지역민의 갈등과 논란만 증폭되고 있다.

2012 세계 박람회를 준비하는 여수 시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시내 간선도로, 특급호텔, 대체 접안시설, 사후활용 용역 등 주요 SOC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수 세계박람회가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

적이다.

여수 지역발전협의회 김충석 이사장(전 여수시장)은 지난 2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장 연계 시내 도로교통망 6개 노선 확·포장의 정부 지원 1천713억원이 수포로 돌아간 점을 지적하고 박람회 기간 중 교통대란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가 시의 버스터미널~박람회장 도로를 현재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소요 사업비 388억원 가운데 23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하는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수 상공회의소, 여수시의회, 시민사회단체, 환경관련 단체 등도 지난 18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박람회 개최최소인 여수신항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갖고 "대체접안시설 건설대책협의회"를 출범키로 뜻을 모았다.

을 모았다.

이들은 이날 "100여 년 역사의 여수 신항이 세계박람회 직접시설로 편입돼 여수 신항의 기능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며 새로운 대체접안시설 축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여수엑스포 시민포럼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 사후활용 용역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라"라며 강력 반발했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들도 출마기자회견을 통해 비상대책회의 등을 통해 박람회 준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여수시의회 관계자 등은 "사업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야간 경관조명, 웅천 생태터널, 인공해수욕장 조성 등에 많은 예산을 사용해 결국 빚을 내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박성태기자@



"강강술래~ 강강술래~" 나주 왕곡권역 전통문화 교육

나주시 왕곡면 주민들이 최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강강술래를 연습하고 있다. 나주시는 농촌미를 종합개발사업 대상지인 왕곡권역 지역역량강화 사업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매주 2~3회 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수공, 광양 섬진강 하류 염해 피해조사

(다압면 금천리~태인도 24km)

어획량 감소로 어민 생계 위협... 상반기 중 착수

광양 일원 섬진강 하류지역에 대한 염해(鹽害) 피해 조사가 이뤄진다. 광양시 어민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4일 광양시 광양어민회관에서 수자원공사가 광양지역 섬진강 하류지역의 염해피해 조사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조인식을 가졌다.

수자원공사는 빠른 시일 내 상반기 중에 광양시 다압면 금천리부터 태인도 구간 24km의 섬진강 하류지역에 대한 염해피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염해피해 조사는 최근 국립 권역위원회가 발췌고 나서면서 이뤄졌다.

섬진강 하류는 재첩, 참게 등을 비

롯한 각종 패류, 민물 어류 등이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으나 상류지역 댐 건설과 취수장 증가 등 하류지역에 대한 매립사업 등으로 말미암아 어족 고갈현상 등 심각한 생태계 변화가 발생했다.

광양민권 어업종사자 3천700여 명은 섬진강 염도가 높아져 재첩과 민물고기 등이 고갈되자 생존권 및 어업활동 보상 등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영현 광양어민회장은 "광양민권 어민들은 1991년 까지만 해도 어류에 의한 연간 소득이 700여 억에 달했으나 점차 어획량의 감소로 지난해



의 경우 100억 여원까지 감소했다"며 "때늦었지만 수공의 피해조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김정수기자@

장흥 정남진 천문과학관

'찾아가는 천문교실' 운영

장흥군 정남진천문과학관은 오는 3~6월, 9~11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찾아가는 천문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천문교실'은 천문과학관에서 교사가 직접 교육 자료와 장비 등을 가지고 원하는 현장으로 찾아가 2시간여 동안 이뤄진다.

프로그램은 '별과 황도 12궁'이라는 주제의 천체 강의를 통해 어렵게 느꼈던 천체를 쉽고 익숙하게 접하도록 하고 사계절 별자리를 알 수 있는 별자리관, 큐브 만들기 등을 통해 한눈에 별자리를 익힐 수 있다.

또 망원경으로 천체 관측을 하는데 필요한 태양을 밝히는 달과 별 등을 관측할 수 있다.

먼 거리 이동이 어려운 단체를 위한 찾아가는 천문교실은 광주·전남지역의 50명 이상 단체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며 참가비는 어린이 700원, 청소년 1천500원, 어른 2천500원이다.

지난해에는 유치원과 학교 등 45개 기관을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부취재본부=김승기기자 kykim@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여수·보성 일대 무인도에

천연기념물·미기록종 등 8종 서식

여수, 보성 일대 무인도서에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미기록종 등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여수시 삼산면 소평영도 등 여수, 보성 지역의 57개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지형과 경관, 식생 등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검은머리물떼새, 매, 물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 3종과 흑비둘기, 두견 등 천연기념물

2종, 반삭동물류(긴 벌레 모양의 무척추동물) 등 미기록종 3종이 발견됐다.

국제 자연보존연맹(IUCN) 적색목록(전세계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된 섬개비와 한국 특산종인 모미꽃바나나무도 발견됐다.

또한 보든아기섬과 토도, 소평영도, 지마도, 죽도, 마당도 등은 과도에 의해 생성된 해안침식 지형인 파쇄대와 해석(해안절벽) 등 경관이 빼어나 보존 가치가 뛰



<검은머리 물떼새>



<반삭동물류>

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도서를 특정도서로 추가 지정해 보존할 계획이다. /*승기기자 song@

월출산서 신종 '어리비탈거미' 발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월출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면서 신종 거미를 발견해 국제학계에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신종 거미는 '월출 어리비탈 거미(Alloclubionoides wolchulsa-

ensis)'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관련 논문은 과학논문 인용색인(SCI) 등재지인 '자연사 저널'에 지난해말 게재됐다.

오장근 국립공원 연구원장은 "월출산은 면적이 56km에 불과해 국립공원 중에서 제일 작지만 생



물 다양성이나 지리학적 중요성은 다른 공원에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성희기자 lsh@

골프장서 받은 마을발전기금 "시끌"

여수 세포마을 이장 2억7천만원 뒤늦게 공개

대책위 "주민동의 없이 임의 수령" 검찰 탄원

여수시 화양면 세포마을 이장과 개발위원장, 이촌계장등이 화양골프장 건설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후 뒤늦게 이를 공개하자 마을 주민들이 최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탄원을 제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5일 화양면 세포리 피해보상 대책 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근)는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이장

등이 화양골프장 건설사로부터 역대 마을발전기금을 받은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세포마을 K 이장과 개발위원장, 이촌계장 등 3명은 지난해 12월 30일 세포지선에 오탁(汚濁) 방지시설 설치 등 동의하는 조건으로 일성해양산업으로부터 2억7천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수령한 후 지난 18일 K 이장이 마을

방송을 통해 뒤늦게 공개했다.

이에 대해 K이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5월 28일 마을총회에서 2억7천만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받기로 결의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피해보상은 별도라는 것을 공중했고, 즉시 공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마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зд면 세포대책위는 "지난해 5월 작성된 마을총회 회의록은 허위"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효상공인중개사' (Efficient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T.062-376-4056 and H.010-3128-1515.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바다공인중개사' (Sea Public Broker) with contact info (063)581-5909 and (010)8004-590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최고급 전원주택매매' (Premium Country House Sale) with contact info (063)223-1772.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상일부동산' (Daedong Sangil Real Estate) with contact info (063)223-1772.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제' (KMB Real Estate) featuring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across various districts like Gwangju, Gwangju City, and Gwangju County.